

빛·소리 지우고...평창군시설관리공단, 야간 산림치유 '달빛 축제'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6.08.20 09:22

9월 4~18일 매주 금요일 치유의 숲서 총 3회 진행
청사초롱 들고 숲길 걷고 명상하며 초가을 밤 '쉼'을



평창치유의 숲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초가을 밤 달빛이 내려앉은 소나무 숲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과 치유를 즐길 수 있는 야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오는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3회에 걸쳐 평창치유의숲에서 '평창치유의 숲 달빛 축제-소나무 숲, 달빛에 물들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낮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가족, 지역 주민에게 야간 산림치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빛을 줄이고, 소리를 줄이고, 말을 줄이는 밤'을 콘셉트로 청사초롱을 들고 약 800m 무장애 데크로드를 걸으며 싱잉볼 명상, 손·발 마사지, 맨발 걷기 등을 체험한다.

행사는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내달 4일은 직장인, 11일은 가족·연인, 18일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우천 시 실내 프로그램으로 변경된다.

참가 신청은 회차별 선착순 전화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평창치유의숲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순철 이사장은 "일상에 지친 직장인과 가족, 지역 주민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 초가을 야간 산림치유

소나무 숲, 달빛에 물들다

청사초롱을 밝히고 걷는 야간 산림치유, 2026 평창치유의 숲 달빛 축제에 초대합니다.

기 간

2026. 9. 4. ~ 9. 18. (매주 금요일, 총 3회)

시 간

19:00 ~ 21:30 (2시간 30분)

장 소

무장애 데크로드(소나무숲, 약 800m)
및 치유정원

인 원

회차별 20명 내외

참가비

평창군 관련 조례에 따름

접 수

033-339-9024

1 9.4.(금)

달빛 아래 쉼과 회복
직장인

2 9.11.(금)

우리, 달빛을 걷다
가족·연인

3 9.18.(금)

온 마을 달빛 어울림
지역주민

달빛 걷기·싱잉볼 명상·손마사지·습식 발마사지·춤테라피·소원트리
휴대폰 없이 온전히 숲과 달빛에 집중하는 밤

선착순 전화 신청 033-339-9024

평창치유의 숲 '달빛 축제' 포스터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

